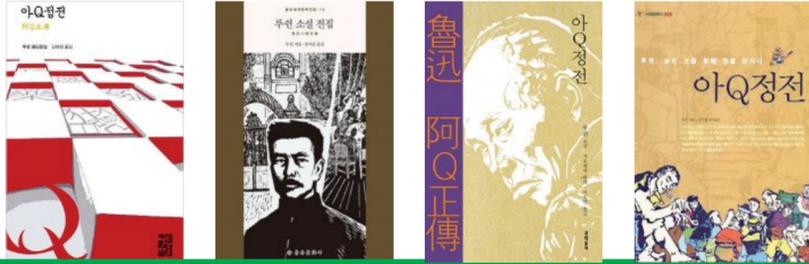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3월의 책 루쉰 ‘아Q정전’

자기합리화에 빠진 인간들에 대한 일침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덤비면 이익이 없다. 모든 지적인 공부와 수련은 다 자기 멋대로 세상을 정하는 무지를 이겨내려는 겸손한 도전이다. 파멸하는 개인이나 몰락하는 나라에는 일정 부분 ‘정신 승리법’에 기대서 소일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기대를 객관적 사실로 착각하는 외교나 내정에는 다 ‘정신 승리법’의 요소가 배어 있는데, 종내에는 쓰디쓴 좌절을 겪는다. 모욕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저항하지 보다는 모욕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위한다. 무력감과 노예근성의 발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희망이 없다. 책을 읽으며 내내 묻는다. 나는 ‘아Q’인가 아닌가. 나와 ‘아Q’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최진석·루쉰 작 ‘아Q정전’을 선정하며〉



중 혁명가이자 사상가·문학가 ‘루쉰’
중국 현대문학 출발점
과거 환상에 빠진 中 현실 풍자
로망틀랑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작품’
고명환과 29일 인터넷 북토크

로 이겨내는 삶이다. 이를테면 강패들에게 얻어맞아도 “나는 얼굴로 주먹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루쉰은 아Q의 ‘자기합리화적’인 삶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과거의 환상에 의지해 살아가는 중국인들을 풍자한다.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아Q정전’에 대해 프랑수아 모로 로망틀랑은 “이 풍자적이고 사실적인 작품은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 프랑스 대혁명 때도 아Q는 있었다. 나는 고뇌에 찬 아Q의 얼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아Q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이질지도 모른다.

‘아Q정전’은 증편 소설인 터라 다른 단편들과 묶여 출판돼 루쉰의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소설인 ‘광인일기’를 비롯해 ‘고향’, ‘중이지’, ‘약’, ‘술집에서’ 등 대표작은 공통으로 실려있다.

을유문화사의 세계문학전집 ‘루쉰 소설 전집’은 루쉰이 일생동안 발표한 소설들을 엮은 소설집 ‘놀함’, ‘방황’, ‘고사산편’ 등 3권에 수록된 33편을 번역한 완역본이다. 루쉰 전공자 서울대 진형준 교수가 번역한 장미 출판본 ‘아Q정전’에는 모두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으며 열린책들 판에는 15편이 담겼다.

문학동네 출간본은 ‘아Q정전’ 한 편만 실려 있다. 이육연 서강대 교수가 번역했고 중국의 대표 판화가로 루쉰의 작품을 새롭게 해석해 형상화해 온 자오옌

의 사실주의 판화가 함께 담겼다.

서해문집 판 ‘아Q정전’에는 소설과 함께 산문집 ‘들 풀’, ‘아침 꽃을 저녁에 줬다’, 후기를 대표하는 역사 소설집 ‘새로 엮은 옛이야기’ 수록작품을 실었다. 소설, 수필, 일기, 서간문 등을 모은 ‘루쉰 전집 (그린비)’은 모두 20권 분량으로 2007년 4월 시작해 2018년 마무리된 의미있는 결과물이다.

최진석 교수와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과 함께하는 ‘북토크’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마을복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3월 셋째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아Q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루쉰

꽃 피는 春3월, 국악에 취하다

광주국악상설공연, 화~토요일 공연마루... 12개 단체 참여



광주국악상설공연이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꽃 피는 춘(春) 3월, 다양하고 흥겨운 국악무대가 펼쳐진다.

12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광주국악상설공연이 3월에도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이달 무대에는 지역의 특색이 담긴 작품을 비롯해 창작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2~4일에는 최근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6개 창작 작품 중 3개 작품의 시범공연이 열린다.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의 ‘무등명월(無等明月)’(2일), 판소리예술단 소리화의 가무악 ‘무등산, 광주를 바라보다’(3일), 예악의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이 함께하는 ‘한백당 이야기’(4일) 등이다. 시범공연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은 광주국악상설공연 특화 공연 콘텐츠로 운영된다.

6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해설과 함께 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는 주제로 ‘홍보가’, ‘수궁가’,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대목을 선보인다.

이어 12일 ‘Good樂天樂’, 20일 ‘풍무(風舞)’, 26일 ‘향음향무(響音響舞)’ 등 기억, 타악, 무용부를 중심으로 각 주제가 있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27일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꽃 피는 봄이오면’이라는 주제로 봄을 맞아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현악 ‘열씨구야 환상곡’, 가야금 3중주 ‘해피니스’, 노래곡 ‘내 사랑 뽕통’ 등을 들려준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83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
 1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손민수(사진)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대장정 마지막 무대가 펼쳐진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 8’이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손민수는 베토벤의 서거 190주년인 2017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시작했으며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지난해 말 마지막 리사이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19로 취소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 3부작인 피아노 소나타 ‘30·32번’을 연주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모두 32곡으로 이뤄졌는데, 이날 들려줄 곡들은 베토벤 만년의 깊이가 더해진 걸작으로 손꼽힌다.

‘30번’은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으로 회자되는 막시밀리안 브렌타노에게 헌정된 곡으로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31번’에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다양한 감정들이 곡 안에 모두 녹아들어 있다. 총 2악장으로 구성된 ‘32번’은 찬송가적 절정의 순간을 담고 있으며 고전주의 피아노 음악을 낭만주의로 이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주목받은 손민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한 후 18세에 미국으로 떠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러셀 셔먼과 변화경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부조니, 클리블랜드, 힐튼 헤드, 호넨스, 루빈스타인 등의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2015년부터 모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으로서 피아니스트 백건우에 이어 두 번째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을 발매했다. 전석 3만원. 문의 02-338-381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 취업 박람회’ 온라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8일부터 11일까지 ‘2021 문화예술 취업 박람회 - 문화예술 잡(JOB)으로 가자’를 개최한다. 6화제를 맞이한 올해 박람회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53개 기업이 참여하며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참여 기업 소개와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댓글로 양방향 상담을 지원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취업정보’를 운영한다. 공공기관, 스타트업, 공연장, 축제 운영, 뮤지컬·연극 분야, 전시기획, 기초·광역문화재단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1인당 300만원씩 6000명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추진한다.

이번 창작디딤돌 사업은 상반기(3월)·하반기(7월) 2회 진행되며, 상반기는 전국 예술인 6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18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안료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상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예술인이거나 하며 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심의 시 우대 선정된다.

희망자는 오는 5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우편 제출하거나, 온라인은 2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평일 오후 2시-5시 재단 1층 보듬센터에서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062-670-5722-57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